

신유물론 패러다임 속 춤의 존재론과 정치학*

한석진**

I. 들어가는 말	IV. 나가는 말
II. 신유물론과 물질적 전회	참고문헌
III. 신유물론적 패러다임에서의 몸, 그리고 춤	Abstract

I. 들어가는 말

서구 예술 역사 속에서 공연은 인간중심주의를 전제로 한 미학적 논의로 전개되었다. 예술은 인간의 의식적 사유와 감각적 표현을 결합한 인간 고유의 창작 활동이자 인간만이 제대로 경험하고 인지할 수 있는 활동으로 간주되었다. 이성적이고 도덕적이며 감정을 소유한 인간은 동물, 자연, 기계보다 우월한 존재였다. 비인간 주체가 어떠한 미적 결과물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예술적 의도의 결핍으로 인해, 즉 예술가 주체의 자유의지가 없으므로 본질적으로 차이를 지닌다고 보았다. 공연은 인간 행위자와 인간 관객이 '지금' '여기'에 물리적으로 함께 하는 공동 현존이 예술형식의 존재론적 특징이자 토대라고 여겼다. 매개된 공연의 경우 재생산이 불가능한 일시적인 예술로서 공연의 본질이 퇴색된, 부수적 산물에 불과했다. 로봇에 의한 퍼포먼스는 행위성(agency)이 결핍되기에 현전 경험이 상실된다고 보았다.

특히 춤의 경우, 몸으로써 획득되는 지식을 몸으로써 표현하는 가장 원초적인 예술형식이라는 믿음이 존재했다. 춤의 본질을 인간 몸의 즉물성에서 찾았고 자연스럽게 정신과 분리된 '성역'으로 남겨져 사회문화 담론에서 배제되거나 부재한 상태로 남았다. 20세기 초 춤이 몸의 운동학을 근거로 예술적 지위와 자율성을 부여받고 20세기 중반에 사회 권력 작용의 미시적 장소로서 몸이 급부상할 때조차도 춤은 몸 담론에서 주변화된 채 생물학적 물질로 남아있었다. 이렇듯 공연예술로서 춤은 서구 근대적 사고 아래 비인간의 물질과 다른 인간의 몸을 특권화하고 언어 및 담론으로 환원되지 않는 물질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이래로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문화, 물질과 언어, 신체와 정신 등 이항 대립적 구조는 포스트구조주의의 사상적 영향으로 해체되었다. 언어, 기호, 담론, 이데올로기가 사회를 구성하고 지배하는 구조 아래, 이성적이고 독립적인 인간 주체 개념은 해체되었으며 지식과 절대적 진리를 추

* 본 논문은 2024년 한국무용예술학회 제29차 학술발표회 「다시 춤, 다시 몸」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이론과 조교수, coco0116@karts.ac.kr

구할 수 있는 인간의 인식론적 탐구는 의심받았다. 더군다나 극심한 생태계 위기를 마주한 지금, 인간의 무자비한 지배에 대한 인과응보로 자연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특권 의식에 대한 재고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 몸과 삶이 자연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술이 인간의 인식과 지각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인간을 포스트휴먼이라는 개념으로 규명하면서 인간과 비인간 간의 경계에 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21세기 춤에서 역시 포스트구조주의 담론의 영향 아래 인간, 주체성, 정체성, 몸을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었다. 춤의 미학적 가치는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에서 판단하는데 그 인간은 유럽 백인 중상층 남성 중심의 협소한 인간 개념이지 않은가? 무용수의 물질적 몸에 사회적 구조와 권력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인간 관객을 위한 공연이 비인간(동물, 자연 등)을 지배하고 희생시키고 있지 않은가? 인간의 신체와 비인간의 물질을 구분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인간의 신체를 특권화하는 태도 이면에 어떠한 정치학이 작동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탐색하는 21세기 춤 실천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몸의 물질성을 구성하는 문화와 담론이 작동하는 방식, 정동, 에너지, 기질과 같은 비가시적 힘으로서의 물질, 인간과 비인간(기계, 사물, 동물 등)의 관계 속 인간 주체성, 퍼포먼스 행위자로서 비인간 존재에 대한 안무적 탐구가 시도되었다.

이러한 춤 실천은 인간의 도구화 및 객체화, 신체성의 상실, 춤의 존재론적 특성 및 위치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비판이 내재한 인간중심주의, 물질중심주의는 결국 오랜 시간 춤을 배제하고 주변화하는 편견을 스스로 수궁해버려서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을 지닌다. 지금의 춤을 둘러싼 급변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주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며, 몸이 사회적 구조, 담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인간의 몸은 다른 물질과 어떠한 본질적 차이가 있는지 등 춤의 행위자로서의 인간, 그리고 춤의 매체로서 인간 몸을 둘러싼 근본적 전제들에 대한 재사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고 몸을 재성찰하는 춤 실천의 이론적, 개념적 틀로서 신유물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신유물론은 담론과 권력관계 속 물질의 복잡성과 행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행위성을 지닌 물질적 실체로서 비인간(사물, 자연, 동물)을 보는 사상적 흐름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 실천적 방법론으로서 신유물론을 제시하는 동시에 새로운 물질로서 몸이 등장하는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선 춤 실천을 신유물론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2015년 겨울에 학술지 『드라마 리뷰, TDR: The Drama Review』에서 ‘신유물론과 퍼포먼스’ 특집호를 발간한 바 있다. 이 특집호는 신유물론이 공연을 이해하는 어떤 새로운 개념 및 방향을 제기하는지, 공연의 역사 그리고 동시대 실천이 신유물론에 관한 어떤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는지를 다양한 연구물을 통해 펼쳐낸다. 퍼포먼스학자 레베카 슈나이더(Rebecca Schneider)가 지적하듯, 안무는 언어와 물질의 경계를 허무는 실천이며 몸짓은 물질적인 동시에 담론적인 것으로 보았다는 점(Schneider, 2015, pp. 8-9)에서 춤은 신유물론적 사고를 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집호에서 상대적으로 춤 실천과 신유물론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그동안 무용학 내에서도 신유물론적 관점이 심도있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동시대 춤 실천을 신유물론적 사유와의 관계 속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된다. 먼저 첫 번째 파트는 신유물론이 등장하게 된 사상적 배경을 설명하고 신유물론의 주요 갈래로 사변적 실재론과 페미니즘적 신유물론을 다룰 것이다. 더불어 신

유물론식 물질 개념을 규명하고 몸과 물질을 동등하게 보는 관점에 대한 신유물론 내 상반된 의견을 살펴봄으로써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난 물질의 존재론을 논의하고자 한다. 두 번째 파트는 신유물론적 사유가 21세기 초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90년대 이후 등장한 확장된 안무 개념을 제기하고 신체성을 새롭게 사유하는 정치적 춤 실천부터, 시각적 연장에서 벗어난 생동하는 몸, 자연, 문화, 기술이 관계를 맺고 얽혀 있는 이중 집합체로서 몸, 동물과 인간 간의 공동 생성 관계를 형성하는 몸이 등장하는 춤 실천을 소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러한 신유물론적 춤 실천이 제기하는 물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결국 퍼포먼스에 작동하는 정치학에 대한 성찰과 춤에 대한 새로운 존재론적 사유를 가능케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II. 신유물론과 물질적 전회

1. 신유물론의 배경과 갈래

서구 근대적 세계관에서 물질은 관성적이고 기계론적 존재이다. 물질의 총체로서 자연은 행위자인 인간과 대립하는 비행위자에 지나지 않았다. 인간이 통제하려고 하나 물질과 자연이 순응하지 않듯이, 인간의 몸 역시 물질적 실체로, 정신에 따라주지 않는 변덕스러운 존재이다(김종갑, 2022, pp. 7-8). 하지만 20세기 후반 이래로 자연과 물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특히나 이상 기후, 온도 상승, 오존층 파괴, 플라스틱 오염, 해빙과 같은 전지구적 기후 위기는 자연이 단순히 인간에게 복종하고 인간을 위해 희생시켜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마찬가지로 행위성을 지닌 존재로 보게 했다. 인간중심주의적 사고 아래 정의되어 온 물질을 재사유하는 시도로 신유물론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서구 근대 철학사에서 물질을 중심으로 둔 사상적 흐름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물질이거나, 적어도 물질에 의존하고 있다”(Bottomore et al., 1983, p. 324)고 주장하는 유물론은 관념론과 대립 관계를 형성하면서 근대 철학의 주요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신유물론은 물질을 관념의 이항 대립적 개념으로 설정하고 물질 중심주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유물론과 차이를 보인다. 신유물론은 그동안 배제되어 온 물질의 회복에 있어서 근대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고 물질에 대해 재사유한다(심귀연, 2023, pp. 167-168). 신유물론이 부상하기 이전 20세기 후반 인문학계에서 유물론은 사회구성주의의 강세에 밀려 낡은 사상으로 여겨졌다. 언어적 전회(linguistic turn)에서 파생된 사회구성주의 이론은 현실을 기호, 문화, 담론, 권력으로 논의했다. 현실이 물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나 이러한 물질적 현실은 특권화된 언어, 담론, 문화와 분리된 영역으로 남겨졌다(Alaimo & Hekman, 2008, p. 3). 물질은 그저 담론적 효과가 작동되는 장소로 간주될 뿐이었다. 이러한 문화적 전회와 텍스트적 접근은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았고 그동안 방법론적으로 배제되었던 물질에 대한 논의가 재소환되었다. 사회를 형성하는 데 물질이 작동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Coole & Frost, 2010, p. 3).

신유물론(neo-materialism, new materialism)이라는 용어를 1991년 처음으로 사용한 포스트휴머

니스트이자 신유물론적 페미니스트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에 따르면, “신유물론은 언어학적 패러다임을 거부하고, 대신에 권력의 사회적 관계 안에 담긴 신체들의 구체적이지만 복잡한 물질성에 방점을” 두는 하나의 방법, 개념적 틀, 정치적 입장이다(Dolphijn & Tuin 저, 박준영 역, 2021, p. 23). 이는 변증법적 유물론자, 역사적 유물론자들이 아닌 깡귀엠(Canguilhem), 푸코(Foucault), 들뢰즈(Deleuze)와 같은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의 유물론적 접근을 계보학적으로 이어온다. 신유물론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관점과 태도를 지녀서 하나의 일관된 이론으로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어느 정도 임의적일 순 있지만 넓은 의미로 볼 때 신유물론은 유럽의 철학적 전통인 칸트(Kant)의 상관주의(corelativism)에 반기를 드는 ‘사변적 실재론’과 사회구성주의 페미니즘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페미니즘적 신유물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Gamble et al., 2019, p. 112; 김종갑, 2022, pp. 11-12).

사변적 실재론은 칸트 철학 이후 독일 관념론을 거쳐 현상학, 구조주의, 포스트구조주의, 해체론에 이르기까지 대륙 철학의 중심이 된 ‘상관주의’를 거부한다(Harman 저, 김효진 역, 2023). 상관주의란 세계는 인간의 마음과 상관해서만 존재하므로 사유와 세계가 별개로 고려될 수 없다는 관점이다. 실재론은 상관주의에 반하여 인간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실재 그 자체가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반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명한 경험적 진리를 바탕으로 실재에 다가갈 수 있다는 상식적 실재론과 달리, 사변적 실재론은 세계는 우리의 직관에 반하기 때문에 사변적 속고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사변적 속고를 강조할지라도 이는 인간의 의식을 중심으로 둔 인간중심주의적 태도라기 보다는 사변이 필요할 정도로 인간의 직관으로 다가갈 수 없는 사물 세계의 복잡성과 역동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이동신, 2023, p. 23).

사변적 실재론자인 프랑스 철학자 쾨팅 메이야수(Quentin Meillassoux)는 “인류가 부재한 세계는 수학적 담론이 묘사”(Meillassoux, 2009, p. 10)할 수 있다고 보면서 수학주의적 견해를 밝힌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존재자의 필연적인 존재이자 순수한 가능성인 우연성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메이야수, 2010, p. 217). 반면 객체 지향 존재론(Object-Oriented Ontology)을 주장한 그레이엄 하먼(Graham Harman)은 메이야수와 달리 실재에 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형이상학적 태도를 보인다. 하먼이 말하는 객체란 인간과 사물을 비롯하여 이론적 대상, 집합적 대상, 상상적 대상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객체는 감각적 매개로 다른 객체에 관여하나, 그 실재는 훨씬 더 큰 가능성을 지닌 채 그 감각적 세계에서 물러나 숨어있다고 주장한다. 관계망에서 주로 이해하던 사물의 복잡성과 역동성 논의에서 인간을 배제함으로써 접근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단지 외부에서 방관하는 특권적 관찰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 자신이 공생의 구성요소가 되는 방식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강조한다(Harman 저, 김효진 역, 2020, p. 110).

페미니즘적 신유물론은 생물학적으로 규정된 여성의 몸을 초월 또는 거부하고자 했던 사회구성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한다. 근대 가부장제가 여성을 영혼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는 육체와 동일시하고 생물학적 근거로 수동적이고 행위성이 결여된 존재로 보았다. 섹스와 젠더를 구분하여 열등한 몸은 사회적 의미와 작용의 결과라고 주장한 사회구성주의자 페미니스트들은 수동적이고 재생산에 얽매어 있는 몸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Grosz, 1994, pp. 16-17). 더 나아가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생물학적 차이마저도 담론적 실천의 결과로 보면서 섹스와 젠더의 이분법적 구분까지 거부한다. 하지만 동시에 성적 차이를 이론화하고 물질성을 탐구하는 대륙의 성차 페미니즘이

론가인 이리가레(Irigaray), 식수(Cixous), 크리스테바(Kristeva) 역시 존재했다. 이러한 대륙 페미니즘을 계승하는 신유물론 페미니즘은 육체/정신, 자연/문화, 섹스/젠더 이분법을 거부하는 영미 해체주의적 관점을 견지하는 동시에 몸의 능동성과 생산성을 강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김남이, 2023, p. 21). 이분법적 사고 아래 백인성과 남성성을 인간의 보편성으로 간주함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영미 해체주의 페미니즘과 신유물론 페미니즘은 동일하다. 하지만 영미 해체주의가 권력의 행사를 언어, 담론, 문화 중심으로 분석한다면, 신유물론은 “몸을 분석의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이를 통해 몸을 주체성의 ‘원료’ 그 자체로”(Grosz 저, 임옥희 역, 2019, p. 12) 삼는다. 신유물론적 페미니즘 이론가들에 따르면, 사회구성주의 페미니즘은 몸을 생산적 권력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사회적 권력과 담론에 저항할 수 없는 “생물학적 백지”(Grosz, 저, 임옥희 역, 2019, p. 65)로 남긴다. 예를 들어, 버틀러는 섹스와 젠더,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 해체를 주장하고 몸이 고정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서 변형되는 가소성을 지닌 실체로 본다. 버틀러가 말하는 몸이 물질화된다는 것(Butler, 2011, pp. 9-10)은 몸이란 결국 권력의 바깥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즉 권력이 만들어내는 효과로만 한정한다고 신유물론 페미니즘은 비판한다. “몸의 재형상화”(Grosz, 저, 임옥희 역, 2019, p. 12)에 초점을 맞춘 신유물론자들은 저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물질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철학적 의미의 물질 일반뿐 아니라 자연과학적 관점에서의 물질에 대한 이해가 동력이 되면서 신유물론 담론이 확장되고 있다(김남이, 2023, pp. 23-24).

2. 행위하는, 얽혀 있는 물질

신유물론적 페미니즘 철학자 캐런 버라드(Karen Barad)의 유명한 명제 “물질은 물질한다(Matter Matters)”(Barad, 2003, p. 189)는 행위 주체로서 물질, 행위로서 물질하기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김종갑, 2022, p. 260). 이 명제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아닌 비인간이 행위성을 지닌 주체가 되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물질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유물론적 물질 개념이 왜 “새로워진”(Coole & Frost, 2010, p. 4) 유물론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구 근대 철학사에서 유물론은 물질을 수동적이고 고정적 실체로 보는 기계론적 관점이 지배적이었다(Coole & Frost, 2010, pp. 263-269). 이러한 근대 유물론에서 물질은 시각 중심적이다. 데카르트(Descartes)에게 공간을 점유하는 물질은 연장(延長)을 가진 실체(res extensa)였으며, 부피와 형태를 지니는 무동적 사물 또는 비생물로 이해되었다. 물질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며 외부의 물리적 작용에 따른 반작용으로 움직여진다.

하지만 철학사에서 물질은 기계론적 관점에서의 “시각적 연장”(Coole & Frost, 2010, p. 268)으로서만 이해되지 않았다. 전근대 철학에서 물질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서 능동성을 가진 존재로 이해되었고, 이는 물활론으로 불렸다. 소크라테스(Socrates) 이전 고대 그리스 철학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물, 불, 공기, 흙 등)을 탐구하였다. 이러한 자연철학에서 물질은 생성과 변화, 결합과 분리와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생동하는 존재였다. 물질 내 비실재적 실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물활론은 뉴턴(Newton), 데카르트 이후 근대적 분리를 거치면서, 물질을 관성적인 것으로 보는 기계론으로 전환되었다(Latour 저, 홍철기 역, 2009). 신유물론은 전근대의 물활론에서 그 뿌리를 찾아오고 더 나아가 물질

을 경계와 윤곽이 분명한 개별적 개체가 아닌 물질 간 분리 불가능한 상태로 ‘연결성’, ‘얽힘’, ‘횡단신체성’ 등을 강조한다(김종갑, 2022, p. 262). 신유물론적 관점에서 물질은 공기, 바람과 같이 공간을 점유하지 않고 시각적 형태를 가지지 않는 물질까지 아우른다. 이러한 물질은 손에 잡히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작동하고 있음을 ‘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힘 또는 기질은 유동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다른 물질과의 관계 속에 있다. 그렇기에 행위성이 있지만 동시에 개별로 존재하는 개체가 아니다.

페미니즘 철학자 이현재는 신유물론이 물질에 대해서 구유물론과 무엇이 다른지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이현재, 2023, pp. 57-59). 첫째, 신유물론에서 물질은 정신에 의해 활성화되는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내재적 행위성을 지닌 살아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물질성은 단순한 수동적 질료로서 물질 이상, 생명, 행위성, 의미를 지닌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물질은 보이지 않는 힘과 생명, 생기를 가진 “생동하는 물질”(Bennett 저, 문성재 역, 2020)이며, 물질과 의미가 서로 횡단성 속에서 형성되는 “물질-담론”(Barad, 2007, p. 152)이자, 그 자체로 행위성을 지닌 자기조직화하는 주체이다. 둘째, 브라이도티에 의하면, 신유물론은 물질 간의 위계성보다는 관계성을 중요시하며, 모든 물질은 다층적 관계들과 얽혀 있는 “이종적 집합체(heterogeneous assemblage)”(Braidotti 저, 윤조원, 이현재, 박미선 역, 2024, p. 227)로 존재한다. 물질적인 것, 문화적인 것, 기술적인 것은 따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인간은 비인간 타자와의 관계적 상호연결 속에서 재구성된다.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는 인간을 독립적 개체로 보는 호모(homo)가 아닌 생명체와 비생명체가 뒤섞인 부식토(humus) 또는 퇴비(compost)로 설명한다. 퇴비는 기호와 상호 연관을 맺고 있는 “물질-기호론적 퇴비”(Haraway 저, 최유미 역, 2022, p. 60)라고 설명한다. 셋째, 신유물론적 페미니즘 관점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물질적 실체는 체현되고(embodied), 구체적인 맥락에 뿌리내리고 얽혀있으며(embedded), 성차화된(sexuate) 몸에서 시작된다(Braidotti 저, 윤조원, 이현재, 박미선 역, 2024, p. 31). 따라서 모든 물질적 실체는 각각 처한 위치와 권력의 차이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체현, 다수성, 차이들을 관통하는 사유”(Braidotti 저, 윤조원, 이현재, 박미선 역, 2024, p. 32)를 바탕으로 몸의 물질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넷째, 구체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몸은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것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 서로 얽혀 있으며, 다른 물질과 관계를 맺고 정동을 일으킨다. 이러한 몸은 “되기의 존재론적 지점”이다(Braidotti 저, 윤조원, 이현재, 박미선 역, 2024, p. 193).

크리스토퍼 갬블(Christopher Gamble)에 의하면 인간중심주의를 타파하는 신유물론자 중에서도 캐런 버라드가 “근본적으로 인간과 물질 사이의 구별적 분리를 약화”시킨다(Gamble et al., 2019, p. 112). 버라드는 행위 주체 또는 행위자 대신 행위소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인간이 하나의 ‘실체’라는 명제를 부정한다. 물질은 행위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이 행위는 독자적이지 않으며 관계 속에서 얽혀 있다. 따라서 버라드가 말하길 물질은 “간-행(intra-action)적 생성 속 세계의 역동적 표현 절합”이며(Dolphijn & Tuin 저, 박준영 역, 2021, p. 98), “인간의 신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신체는 세계의 반복적인 간-행성, 수행성을 통해 물질화”된다(Dolphijn & Tuin 저, 박준영 역, 2021, p. 99).

하지만 몸과 물질 간의 경계를 두지 않는 바라드의 주장은 인간의 몸은 다른 물질이랑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는 이론가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포스트휴머니즘 이론가 캐리 울프(Cary Wolfe)는 신유물론자들이 물질 간의 경계, 생명체와 비생명체와의 질적 차이를 제거하고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현상학적이고 존재론적인 특수함, 차이, 비균형 등을 제거하는 평평한 존

재론”이라고 비판한다(Feder, 2014, pp. 889–890). 또 다른 포스트휴머니즘 이론가인 캐서린 헤일즈(Katherine Hayles)는 들뢰즈식 물질 간의 관계를 강조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몸은 “독특하게 중요한 잠재성”을 지녔다고 말하며 다른 개체와 구분한다(이동신, 2023, p. 202). 존재적 개별성에 관한 문제는 개체 간의 질적 차이를 설명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지면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인다. 레비 브라이언트(Levi R. Bryant)의 ‘평평한 존재론’은 허먼이 말한 “처음부터 모든 객체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해야 한다”(Harman, 2017, p. 54)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 브라이언트는 모든 물질이 잠재적으로 동등하나, 현행적으로 역량의 차이를 지닌다고 말하며, 동등한 잠재성을 기반으로 한 객체의 구체성을 강조한다(Bryant 저, 김효진 역, 2020, p. 178).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으나 공통으로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난다는 대원칙을 따르고 있다. 인간/생명체와 비인간/비생명체 간의 현행적, 역량적 차이를 인정하느냐 문제를 제쳐두더라도 비인간의 능동성과 행위성이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둘이 존재론적 차원에서 평등하다는 점은 신유물론자들 모두가 동의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III. 신유물론적 패러다임에서의 몸, 그리고 춤

1. 춤에서의 물질 대 문화에서 물질-문화로

그렇다면 춤 역사에서 신체와 언어, 자연과 사회 간의 관계는 어떻게 인식됐으며 창작과 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동시대 춤은 물질의 능동성과 행위성을 어떻게 적용 또는 비판하는가? 인간중심주의적 서사와 인간과 비인간 간의 이분법을 도전 또는 강화하는가? 신유물론적 질문들은 춤의 정의, 개념, 매체, 방법, 형식 등에 있어서 실험적 실천과 새로운 도전을 자극한다.

전통적으로 퍼포먼스에서 행위자는 인간을, 행위 매체는 인간의 몸을 전제로 했으며, 인간 관객의 인지적, 감각적 경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인간만이 의식적 사유와 감각적 활동을 동반하는 창의적 행위로서 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물론 고대 신화에서 디오니소스 제의 또는 비서구 문화에서 사물, 영혼, 죽은 조상의 행위성의 존재를 믿는 퍼포먼스들이 존재했지만, 근대 서구적 사고 아래 이러한 퍼포먼스는 비이성적이거나 원시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Schneider, 2015, p. 10). 뿐만 아니라 소품, 조명, 분장 등 무대장치, 마리오네트, 로봇 등 움직이는 사물, 동물과 같이 실제 살아있는 생명체가 등장하여 공연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하지만 퍼포먼스에서 사물은 어디까지나 숨어있는 인간에 의해 움직이는 수동적 존재로 인식되었고, 동물은 스스로 움직이지만 행위성이 없는 기계적 물질로 간주되었다. 즉 공연은 행위성을 갖는 유일한 물질인 인간의 몸을 매개로 하여 독립된 개체로서 수행할 때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생명체/비생명체, 자연/문화, 인간/비인간 간의 경계를 허물고 다른 물질과 관계 속 얽혀 있는 존재 방식을 주장하는 신유물론적 접근 또는 이해는 인간중심주의를 전제로 하는 공연의 존재론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공연의 새로운 행위자, 행위 방식, 행위 태도를 도발할 수 있다.

인간의 몸을 주된 매체로 하는 예술 장르로서 춤은 물질에 대한 근대적 인식론에 따라 배제되거나 주목받았다. 춤이 몸으로써만 획득할 수 있는 체감적이고 즉각적인 지식이라는 믿음은 물질 중심주의적

유물론적 태도를 내재한다. 춤의 역사는 원초적인 제의에서 찾았으며 가장 원형적 예술형식이라는 인식이 존재했다. 춤에서 언어적 사유는 불필요하거나 불편한 역할로 존재하였고, 정신/신체, 언어/물질의 분리는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것이 되었다. 관념론적 관점에서 춤은 진지한 사유가 결여되고 진리에 접근하거나 지식화될 수 없는 대상이었던 반면, 유물론적 관점에서 춤은 세계의 근원인 물질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정신 역시 춤의 결과이자 양태였다. 관념론과 유물론 모두 근본적으로 정신과 물질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전제하고 있었다.

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춤은 존재론적 특징을 ‘운동학’의 순수한 즉물성에서 찾았다(Martin, 1933). 모더니즘이 추구했던 매체적 자율성과 순수성에 따라 춤은 형식, 즉 몸의 조형성에 예술적 뿌리를 내렸다. 서현석, 김성희가 지적하길, 춤의 본질은 즉물성에서 찾았으나 모더니즘의 이성중심주의에 따라 예술로서의 춤은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2016, p. 142). 제르멘 프뤼도모(Germaine Prudhommeau)에 의하면, 사물, 동물, 식물의 움직임은 춤 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Prudhommeau 저, 양선희 역, 1990), 춤을 자연 속 비인간의 것과 다른 ‘형식’을 지닌 영역으로 분리했다. 춤은 인간의 내적 표현이 들어간 움직임으로 정의됨으로써 그 예술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춤을 온전히 예술로 인정한 모더니즘의 이성적 논리와 이를 초월하는 자연/물질을 결합해야 하는 과제로 인해 춤은 늘 모순과 맞닥뜨려야 했다. “모더니즘의 온전한 강복을 받지 않은 무용은, 몸을 이성과 언어 너머 어딘가에 배치시켜 왔다”(서현석, 김성희, 2016, p. 144).

20세기 중반 이래 등장한 언어적 전회에 따라 대두된 사회구성주의 담론은 담론적, 이데올로기의 전장으로서 몸을 주목했고 몸을 언어적 기초 체계 내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언어와 신체를 이분화하여 사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몸이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중요한 논제로 부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춤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소외되었다. 몸 담론이 부상했을 때조차 춤은 무관한 또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았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춤의 본질을 잃지 않으려면 언어적 사유로부터 분리된, 뜨겁게 분출하는 몸을 지켜야 한다는 물질적 순수성에 대한 춤의 오래된 고집을 생각해 보면 사실 어렵지 않게 몸 담론 속 춤의 부재를 이해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춤계와 학계는 맹위를 떨치고 있는 포스트 담론에 반응하여 근대적 춤 개념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시도가 이뤄졌다. 학자들은 춤을 담론적 구성체이자 권력의 장으로 보고 춤이 만들어지는, 추어지는, 경험하는 방식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무용학의 경향을 랜디 마틴(Randy Martin)은 비판적 무용학이라는 용어를 통해 춤을 사회적, 정치적 실천으로 보고 체현, 정체성, 재현 측면에서 분석하는 흐름을 설명했다(Martin, 1998).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춤계 역시 춤과 안무를 재인식하고 신체를 새롭게 사유하기 시작했다. 90년대 이후 서유럽과 북미 무용가를 중심으로 등장한 ‘개념무용’ 또는 ‘농당스’는 기표 및 기의가 아닌 기호가 작동하는 방식, 즉 움직임과 사회문화, 정치경제적 구조와의 관계에 주목했다. 안무 개념의 확장을 이끌고 기존의 춤 매체 및 양상 변화를 주도했다. 보야나 스페이지(Bojana Cvejic)는 시각예술의 한 형식인 ‘개념미술’과 태도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고 사용되는 개념무용이라는 용어는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 간, 춤과 춤이 아닌 것 간의 대립을 강화함으로써 춤을 양분화한다고 비판했다(Cvejič, as cited in Cvejič, Le Roy & Siegmund, 2006). 개념무용이라고 불리는 작품들이 어려운 이론을 다루지만, 신체적 실천으로서 춤을 부정한다는 식의 강한 반감이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사실 이 작품들은 상당히 수행

적이며 지각적인 것의 철회를 의미하지 않음을 스페이지는 강조했다. 안무적 방법으로써 지각적인 것을 사용하고 이론적인 텍스트로 환원될 수 없으며, 언어가 아닌 움직임의 우위에 둔다고 주장했다(Cvejič, as cited in Cvejič, Le Roy & Siegmund, 2006).

장 마크 아돌프(Jean-Marc Adolphe)는 이들이 춤 테크닉에서 벗어나 신체의 역동성에 대한 찬양을 의심한다고 말한다. 반면 신체의 비형식성과 인간적 측면을 탐색하고 몸의 특질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사유와 신체성의 동시성”으로 특징짓는다. 신체성의 거부가 아닌 물질과 비물질, 사유와 신체의 불가분한 관계로 이들의 춤을 규명한다(Aldophe, 1993, p. 35). 이러한 논쟁들은 개념무용이라고 불리는 흐름의 작업들이 신체성을 부정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춤이 개념적, 언어적, 기호학적 구조와 체계를 근간으로 한 비가시적인 것과 생물학적 특성을 토대로 한 가시적인 것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동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춤을 유형학적 계보로 파악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하는 역사학적 필요성은 곧 춤에 대한 태도와 새로운 역동성을 부여하는 단초이다. 질문의 근원적 맥락을 성찰함은 오늘날 전제적으로 고정되어 사유를 제한하는 조건들을 재고하기 위함이다. ... 오늘날 언어적 사유는 도리어 신체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예술을 의문하는 도전의 장이 되었다(서현석, 김성희, 2016, p. 149).

이러한 실험적 도전은 기존의 물질/신체와 비물질/정신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유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시에 모던 댄스가 가졌던 딜레마인 신체와 언어 간의 분열을 화해시키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신체와 언어에 대한 반(反)이분법적 태도 아래 안무가들에게 몸이란 사회구성주의론이 말하듯 기호, 문화, 담론에 의해 종속되는 백지상태의 것이 아니며, 유물론이 말하듯 기호, 문화, 담론과 별개로 존재하는 물질 역시 아니다. 그들의 안무 속 몸은 시각적 연장으로 경계 짓는, 고정되고 개별적 주체가 아니다. 대신에 보이지 않는 힘의 작동 아래 다른 비물질적인 것과 얽혀 있는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되기’ 과정 속 주체이다.

2. 신유물론적 관점에서의 인간과 비인간의 춤

유물론적 신체관에서 벗어나 물질과 문화의 경계를 허물고 독립적 개체가 아닌 비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주체를 말하는 춤은 물질을 새롭게 사유한다는 점에서 신유물론적 관점을 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물질하는” 21세기 춤은 신유물론의 반이분법적 사고의 영향을 받아 또는 신유물론의 물질화 과정의 사례를 제공하면서 물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펼쳐나간다. 춤에서의 신유물론적 접근은 물질과 비물질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힘, 에너지, 정동으로서 춤을 탐구하고, 춤의 유일한 행위자이자 수용자인 인간중심주의를 타파하며, 비인간/비생명체의 행위성을 드러낸다. 이제 춤은 인간만이 아닌 모든 물질에게 열려 있다. 행위하는 물질화 과정에서 춤의 시간은 인간이 감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흐른다. 비물질, 비인간에게도 춤이 존재한다는 말은 단순히 낭만적이고 낙관적인 시선이 아니다. 인간과 비인간, 자연과 문화, 물질과 비물질 간의 위계 속에서 작동했던 식민, 젠더, 종간 정치학을 폭로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춤은 백인, 남성, 이성, 능력, 인간중심주의에 따라 억압되었던 인간과 비인간의 물질과 그것의 행위성을 드러낸다.

황수현의 「카베에」(2023)에서 39명의 무용수는 얽혀 있고, 정동하는, 경계 없는 물질로서 몸으로 존재한다. 제목 ‘카베에’가 비어있는 구멍 또는 움푹 파인 공간인 ‘공동(空洞)’을 의미하듯, 공연 장소인 프 로시니엄 형태의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은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어두운 동굴처럼 변모된다. 객석은 무 대 아래가 아닌 무대 위 중앙을 등글게 에워싸고 열린 천장에서 어렴풋한 채광이 들어온다. 마치 동굴에 서 작은 물방울이 큰 공명을 만들어낸 듯, 무용수의 구음과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진동은 그들과 가까이 마주한 관객에게 생생하게 전달된다. 움직임은 시각적 형태를 드러내는 대신 무용수들이 내는 ‘아’, ‘오’, ‘희’, ‘흠’, ‘이’와 같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신체 기관과 자세, 근육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소리는 파동을 일으켜 타인의 소리와 움직임에 침투하고 그것은 다시 반향이 되어 돌아와 자신의 소리와 움 직임에 공명을 일으킨다. 황수현은 그동안 안무작업에서 신체적 행위를 매개하여 감각과 감정의 관계를 탐구하고 퍼포머 간뿐만 아니라 퍼포머와 관객 간의 감각적 전이에 천착해 왔다. 전작에서 소규모의 무 용수들과 관객 간의 정동을 일으켰다면 「카베에」는 물질적 움직임을 동반하는 비물질적인 소리의 상호 작용을 다수의 몸으로 물질화한다. 무용수는 구음을 냄으로써 몸의 내외부가 작동하는 방식을 지각하게 되고 몸을 조율함으로써 소리를 발생시킨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과정이 자신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움직임과 소리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다수 무용수의 구음은 개별적으로 흘러나오고 이내 다성음악처럼 한데 모여, 개인은 타인의 관계 속에서 함께 그리고 각자 움직인다. 바 람에 휩쓸려서 움직이는 낙엽들처럼, 집단적 창발 현상을 일으키는 새들의 자기조직화 움직임처럼.

살아있는 몸은 인간, 박테리아, 동물, 대지와 같은 생명체와도 연결되어 있지만 문화적 규범과 테 크놀로지와 같은 비생명체와도 연결되어 다층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이종적 집합 체이다. 뭉(Mu:p)의 「캐스케이드 패시지」(2023)는 전력공급망 마비 사태로 인해 더 이상 극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공간이 다크 투어 ‘관광지’로 탈바꿈되어 관객을 맞이한다. 2003년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블랙 아웃’ 사건이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발생했고 재난에도 불구하고 극장은 폐허가 되지 않은 채 예비 전력으로 운영되어 관광지화된다. 관객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곳을 찾아가는 다크 투어의 관광객이 되어서 극장 내부를 체험하게 된다. 관객은 패키지 A(apple)와 B(banana) 중 선택 을 해야 하고 선택에 따라 1층 앞좌석 또는 2층 객석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후 공연 내내 관객은 관광 프로그램 체험할 수 없는 관찰자의 위치에 놓인다. 관객을 대신하여 체험 관광하는 사람은 패키지 C(coconut)의 참가자들이다. 이들은 5명의 관광객과 1명의 투어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는 무용수들이 다. 패키지 A와 B의 관객이 각자의 위치로 이동 후 극장 천장에 매달린 수많은 플라베니아 층이 거대한 존재감을 내뿜으며 내려온다. 원 두 판을 겹쳐 만든 구체인 플라베니아는 잘라내도 그 조각이 새롭게 증 식하는 플라나리아처럼 폐허가 된 극장에 유입된 증식하는 새로운 ‘유기체’이다. 허구를 위한 공간이라 는 극장의 기능을 작동시키기 위해 제거되어야 마땅했던 살아 숨 쉬는 것들이 채워지면서 극장은 새로 게 방식으로 실존한다. 수직운동을 하는 플라베니아는 극장의 깊이와 부피를 이전과는 다르게 느끼게 만든다. 패키지 A와 B 참여자는 또 다른 유기체를 마주하는데 바로 패키지 C의 무용수들이다. 투어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려는 순간, 투어 가이드는 에너지 방전으로 정신을 잃고 관광객들은 의식 없는 가이 드를 데리고 이동을 시작한다. 무대 바닥까지 내려온 플라베니아를 넘어가면서 극장 안쪽까지 들어가는 이들의 몸은 극장 구조 속에서 뒤엉켜서 존재한다.

「캐스케이드 패시지」에는 행위성의 유무는 인간/생명체와 비인간/비생명체를 경계 짓는 기준으로 작

동하지 못한다. 작품 속 ‘유기체’로 설정된 플라베니아는 비생명체이지만 관객이 극장을 다르게 감각하게 만드는 고유의 행위성을 지닌 존재이다. 에너지 방전으로 의식이 사라진, 자발적 움직임이 불가능해진 투어 가이드는 수동적이고 행위성이 없는 물질로 간주될 수 있지만 다른 관광객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 극장 속 존재하는 모든 객체가 상호작용하면서, ‘내부-작용’을 통해 각자의 행위성이 창발하게 된다. 개별 객체들은 이미 갖춰진 행위성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 간 얽힘을 통해 행위성이 창발되며, 바로 이 과정에서 극장이 다크 투어 관광지로 재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한 춤비평가는 이 작품을 “해방적 관점의 제기, 관계의 확장 가능성으로 타진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리의 말소, 기술에의 투항, 상품으로의 전락”으로 해석하고 작품 속 인간 무용수가 “대상화 또는 도구화”된다고 지적했다(하영신, 2023. 08. 05). 하지만 이는 인간을 다른 물질들과 동등한 객체로 보는 것에 대한 거부와 동시에 인간의 물질화를 수동적 객체화로 간주한 것이 아닐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먼이 지적하듯, 인간 무용수의 생동감 있는 몸짓을 시각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물질과의 ‘정동’을 발생시키지 않는 수동적 객체로 남겨짐을 의미하지 않으며, 인간 역시 객체로 본다는 것은 모든 객체가 동등하게 실재적이라는 말과 다르기 때문이다(Harman 저, 주대중 역, 2019, p. 23). 오히려 작품은 인간이 다른 물질과 구분되는 특권주의를 내려놓고 “인간 자신이 공생의 구성요소가 되는 방식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Harman 저, 김효진 역, 2020, p. 110)으로 보는 편이 마땅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공연에서 동물이 등장해 왔으나 도구적 사용에 불과했다. 동물은 살아있는 생명체이자 완벽하게 제어되지 않는 행위성을 가진 존재로서 공연에 긴장감, 우연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즉 동물이 지니는 생생함과 연극적 재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발성이 인간이 ‘만들어낸’ 공연에 실재성을 더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기인했다. 하지만 21세기 춤과 퍼포먼스에서는 인간중심적 시선에서 벗어나 동물에 접근하는 시도를 한다. 로라 컬 오마올리카(Laura Cull Ó Maoilearca)와 플로렌스 피츠제럴드-올숍(Florence Fitzgerald-Allsopp)은 동물, 식물, 미생물 등 다른 종으로부터 또는 다른 종 사이에서 발생하는 퍼포먼스를 ‘중간 퍼포먼스(interspecies performance)’로 명명한다. 이들은 우나 차우두리(Una Chaudhuri)의 개념을 빌려 중간 퍼포먼스가 다른 생명체가 실제로 무대에 오르거나 인간 공연자와 함께 공연하는 것뿐 아니라 더 넓게는 인간과 비인간 간의 실재 또는 상상의 관계를 기록하고 성찰하는 공연을 아우른다고 말한다(Chaudhuri, 2014, p. 6).

크루트 주락(Krōt Juurak)과 알렉스 베일리(Alex Bailey)는 ‘반려동물을 위한 퍼포먼스(Performances for Pets)’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 단체는 반려동물이 살거나 자주 방문하는 곳에 찾아가 인간 동반자로부터 반려동물의 성격, 취향, 기호를 파악한 후 그에 맞게 공연을 조정한다. 주락과 베일리의 퍼포먼스는 개를 위해서는 15-20분, 고양이를 위해서는 20-30분 정도로 진행되며 인간 동반자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그들은 개와 고양이의 소리와 움직임 언어를 이해하고 모방하면서 의미와 감정을 소통하는 춤 기반 퍼포먼스를 수행한다. 개와 고양이가 주락과 베일리가 하는 퍼포먼스를 춤이라고 인지하거나 판단할 수 없으나, 움직임과 소리와 같은 감각적 자극으로부터 행복감, 즐거움 등의 미적 경험을 경험할 수 있다. 고양이와 개는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연을 감각하고 인간과 다른 미적 선호를 가진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으며, 동물의 미적 선호라는 실재는 뒤에 물러나 숨어 있으므로 완전히 파악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동물 입장에서 그들의 감각과 가치 체계에 접근하는 것은 중요하며, 반대로 인간

감각 체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유를 제공할 수 있음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주락과 베일리의 퍼포먼스 관객은 반려동물로 제한하며, 야생동물, 농장동물, 동물원 동물과는 달리 반려동물은 특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정서적 유대감과 행복감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한다(Juurak & Bailey, 2024). 인간과 반려동물은 공동 거주를 통해 상호 간에 길들여지는 과정을 거쳐왔다. 그들은 서로에게 행동, 두뇌뿐 아니라 유전자에도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만큼 “자연문화의 공생발생적 세포 조직”(Haraway, 2016, p. 108)이 형성된다. 해러웨이는 생물학적 분류로서 종을 거부하는 유전자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개념인 ‘반려종’을 제시한다(Haraway, 2016, p. 111). 최소 두 개의 종이 있어야 하고 “공동생성”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Haraway, 2016, p. 103)에서 반려종은 함께하는 동물이 지니는 능동적 행위성을 강조한다. 주락과 베일리의 반려동물을 위한 퍼포먼스는 반려동물과 인간과의 공동생성 관계 속에서 창발하고 반려동물이 인간 퍼포머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능동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반려종 개념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중간 퍼포먼스의 또 다른 예로서 데이비드 웨버-크레브스(David Weber-Krebs)의 「발타자르, Balthazar」(2011)는 동물을 위한 퍼포먼스가 아닌 동물이 핵심 퍼포머로 등장하는 작품이다. 여섯 명의 퍼포머와 함께 등장한 한 마리의 당나귀는 각각 독립적이지만 동시에 상호 반응하며 움직인다. 여섯 명이 걸으면 당나귀는 관심을 주지 않다가 어느새 자발적으로 함께 걷고 있으며, 그 반대의 상황 역시 발생한다. 인간 퍼포머는 의도적으로 당나귀와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하고, 당나귀는 수동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적극적인 반응을 통해 인간 퍼포머의 행위를 창발시키기도 한다. 이들의 상호관계를 무대라는 공간의 관습에서 벗어나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인간 관객은 당나귀에게 퍼포머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당나귀의 행동에 자신을 투사하여 의인화해 해석하곤 한다. 하지만 퍼포먼스에서 당나귀는 이러한 인간중심주의적, 또한 퍼포먼스의 관습적 투사를 무력화하고 인간중심주의적 미학과 가치 체계 안에서 작동되지 않는 퍼포먼스를 수행한다.

때때로 중간 공연은 인간의 인식 범위 내에서 포착되고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 종의 참여자들에 의해 그 취약한 존재가 드러나는 지속적이고 창발적인 과정이다. 많은 기고문에서 예술가들은 관객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는데 이는 예술가들이 자신이 참여하는 것이 ‘성숙한 극장 작품’이 아니라 결과의 예측 불가능성과 실패 가능성으로 규정될 수 있는 실험이기 때문이다(Cull Ó Maoilearca, 2024).

결국 중간 퍼포먼스는 인간 주체를 넘어 다른 종과의 공동생성 관계 속에서 창발하는 다른 종의 행위성을 현현하고 다른 종에 대한 보다 윤리적 만남을 실천한다. 물론 이런 만남의 수행은 기존의 인간중심주의적 패러다임 아래 예측 불가능하고 불완전하며 실패 가능성을 가진다. 하지만 그 실패는 다른 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감수성을 가능케 한다. 동시에 인간이 독립 개체가 아닌 여러 얽혀 있는 관계 속에서 더 풍성해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 가능함을 제시한다.

IV. 나가는 말

퍼포먼스학자 슈나이더는 신유물론에서 ‘안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됨을 포착한다(Schneider, 2015, p. 8). 예를 들어 신유물론적 페미니즘 이론가 다이아나 쿨(Diana Coole)은 언어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모든 것이 물질임을 주장하는 신유물론을 안무 개념으로 설명한다. 쿨에게 있어서 체화된 사고이자 신체적 사유의 패턴인 안무는 곧 “공동 생산”에서의 “인간과 비인간의 불가분적 맞물림”(Coole, 2013, pp. 3-4)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신유물론을 안무로 설명하는 쿨의 시도는 안무가 이미 신유물론적 사유와 실천을 내포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무용계는 자기성찰적 질문을 해야 할 것이다. 동시대 춤은 언어 대 물질 간의 구분에서 벗어나 인간중심주의와 비관계적 주체를 문제삼고 있는가? 비인간의 행위성을 바탕으로 인간과의 공생 관계를 타진하는가?

오랜 시간 춤은 관념론적 물질 개념에 따라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몸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몸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춤의 본질이었다. 모더니즘의 이성 중심주의의 폭격에도 즉물적인 몸과 그것의 운동성은 춤의 존재 이유로 지켜냈고 인간 내면의 표현이라는 메타키네시스를 동반하여 예술 지위를 획득했다. 하지만 언어와 물질 사이의 딜레마 속에서 춤은 그토록 스스로 벗어나고자 했던 심신이원론의 함정에 빠지기도 한다. 90년대 이래로 등장한 확장된 안무적 실천에 대한 물질중심주의적 비판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권력이 비가시적으로 몸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시화하는 안무적 도전이었음에도 운동성과 조형미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체성의 거부라고 간주하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러한 안무적 시도가 바로 신유물론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것과 사회정치적인 권력이 관계를 맺어서 형성하는 몸의 물질성을 현현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구성주의 이론들이 물질적 현실을 인정하고 심지어 몸이 고정된 물질이 아니고 물질화되는 과정으로 보았지만, 결국 몸을 사회적 구조와 권력의 산물로만 간주한다고 신유물론자들은 비판했다. 하지만 춤은 담론, 제도, 권력과 같은 다른 객체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몸을 사유할 때 몸을 단순히 수동체로 남겨두지 않았다. 춤에서 몸은 늘 행위성을 가진 능동적 실체였다.

21세기 춤 실천은 몸을 시각적 실체뿐 아니라 정동, 에너지, 기질까지 아우르는 물질로서 다뤄지고 있다. 담론, 기술 그리고 동물 등 다른 객체와의 관계 속에서 물질화되고 행위성을 발현하는 이중집합체로서의 몸을 드러낸다. 또한 비인간 물질의 행위성을 탐구함으로써 인간의 몸을 다른 물질에 비해 현행적으로 질적 차이가 있을지라도 잠재적으로는 동등하다는 탈인간중심주의적 태도를 드러낸다. 인간과 비인간, 몸과 물질 간의 경계가 흐려질 때 인간중심주의를 전제로 했던 춤은 그 지위에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신유물론이 결국 인간이라는 객체를 더 풍부하게 사유할 수 있는 방식이듯, 몸을 다르게 사유함으로써 춤의 새로운 존재론을 가능케 하고 미학적 방법론과 실천적 범주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춤의 이러한 접근은 신유물론이 과학주의에 빠지지 않고 물질을 설명 가능케 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춤 실천은 신유물론 담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남이(2023). 신유물론X페미니즘: 몸, 물질, 생명.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편), *신유물론(들)과 페미니즘, 그리고 버틀러 비판*. (pp. 15-48). 여이연.
- 김종갑(2022). 들어가는 말. 몸문화연구소 (편), *신유물론*. (pp. 7-8). 필로소피.
- 서현석, 김성희(2016). *미래예술*. 작업실유령.
- 심귀연(2023). 신유물론X페미니즘: 몸, 물질, 생명.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편), *새로운 물질로서 몸과 페미니즘*. (pp. 165-183). 여이연.
- 이동신(2023). *포스트휴머니즘의 세 흐름: 캐서린 헤일스, 캐리 울프, 그레이엄 하먼*. 갈무리.
- 이현재(2023). 신유물론X페미니즘: 몸, 물질, 생명.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편), *신유물론의 렌즈로 읽는 그로스의 육체유물론: 사회구성주의와 생물학적 결정론을 넘어서는 '몸'을 향하여*. (pp. 49-78). 여이연.
- Bennett, J.(2020). *생동하는 물질* (문성재 역). 현실문화. (원저출판 2010).
- Braidotti, R.(2024). *포스트휴먼 페미니즘* (윤조원, 이현재, 박미선 역). 아카넷. (원저출판 2022).
- Bryant, L.(2020). *존재의 지도: 기계와 매체의 존재론* (김효진 역). 갈무리. (원저출판 2014).
- Dolphijn, R., & Tuin, I. V. D.(2021). *신유물론: 인터뷰와 지도제작* (박준영 역). 교육서가. (원저출판 2012).
- Grosz, E.(2019). *몸 페미니즘을 향해* (임옥희 역). 꿈꾼문고. (원저출판 1994).
- Harman, G.(2019). *쿼드러플 오브젝트: 새로운 유물론과 사변적 실재론* (주대중 역). 현실문화연구. (원저출판 2011).
- Harman, G.(2020). *비유물론: 객체와 사회 이론* (김효진 역). 갈무리. (원저출판 2016).
- Harman, G.(2023). *사변적 실재론 입문* (김효진 역). 갈무리. (원저출판 2018).
- Haraway, D. J.(2022). *트러블과 함께하기* (최유미 역). 마농지. (원저출판 2016).
- Latour, B.(2009).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홍철기 역). 갈무리. (원저출판 1991).
- Prudhommeau, G.(1990). *무용의 역사* (양선희 역). 삼신각. (원저출판 1968).
- Alaimo, S., & Hekman, S. J.(2008). *Material feminisms*. Indiana University Press.
- Barad, K.(2007).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ke University Press.
- Braidotti, R.(1991). *Patterns of Dissonance: A Study of Women and Contemporary Philosophy*. Routledge.
- Bottomore, T.(1983). *A Dictionary of Marxist Thought*. Harvard UP.
- Butler, J.(2011).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Routledge.
- Chaudhuri, U., & Hughes, H.(2014). *Animal Acts: Performing Species Today*.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Cole, D., & Frost, S.(2010). *New Materialisms: ontology, agency, and politics*. Duke University Press.
- Cvejič, B., Le Roy, X., & Siegmund, G.(2006). To End With Judgment by Way of Clarification. In: M.

- Hochmuth, K. Kruschkova & G. Schollhammer (eds.). *It Takes Place When It Doesn't. On Dance and Performance*. (pp. 49-58). Revolver.
- Elizabeth, G.(1994). *Volatile Bodies: Toward a Corporeal Feminism*. Indiana University Press.
- Haraway, D. J.(2016).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Duke University Press.
- Harman, G.(2017). *Object-Oriented Ontology: A New Theory of Everything*. Penguin Books.
- Martin, J.(1933). *The Modern Dance*. A. S. Barnes and Co.
- Martin, R.(1998). *Critical Moves: dance studies in theory and politics*. Duke University Press.
- Meillassoux, Q.(2009). *After Finitude: An Essay on the Necessity of Contingency* (Ray Brassier trans.). Bloomsbury.
- Adolphe, J. M.(1993). The Beginnings of a “New Wave”. *Ballett International*, 93(4), 29-31.
- Barad, K.(2003). Posthumanist performativity: Toward an understanding of how matter comes to matter.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28(3), 801-831.
- Coole, D.(2013). Agentic Capacities and Capacious Historical Materialism: Thinking with New Materialisms in the Political Sciences.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41(3), 451-69.
- Feder, H.(2014). Changing Nature. *Interdisciplinary Studies in Loterature and Environment*, 21(4), 873-893.
- Gamble, C. N., Hanan, J. S., & Nail, T.(2019). *What is New Materialism? Angelaki*, 24(6), 111-134.
- Schneider, R.(2015). New Materialisms and Performance Studies. *TDR: The Drama Review*, 59(4), 7-17.
- Cull Ó Maoilearca, L.(2024. 05. 09). **On Interspecies Performance** [특별강연]. 2024 한국무용예술학회 춘계특강.
- 하영신(2023. 08. 05). “국립현대무용단 ‘캐스케이드 패시지(Cascade Passage)”. *더프리뷰*. <<http://www.thep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39>, 2024. 10. 01>.
- Juurak, K., & Bailey, A.(2024). “Q & A”. **Performances for Pets**. <<https://www.performancesforpets.net/info>, 2024. 10. 01>.
- Ulrich, J.(2017. 10. 01). “Art for Animal Audiences”. **Performances for Pets**. <<https://www.performancesforpets.net/text>, 2024. 10. 01>.

논문투고일 2024. 11. 15.
 심사일 2024. 11. 21.
 심사완료일 2024. 12. 06.

The Ontology and Politics of Dance in the Paradigm of New Materialism

Han, Seok Ji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ssistant Professor

This paper examined the concept of materiality in the context of new materialism and discussed an ontology of matter that moves beyond anthropocentrism. The paper then investigated how new materialist thinking is unfolding in 21st-century dance. It introduced the expanded concept of choreography that emerged after the 1990s, illustrating politically-engaged dance practices reconsidering corporeality, hybrid assemblages where bodies, nature, culture, and technology are entangled, and the co-creation relationships among bodies, animals, and humans. When the boundaries between human and non-human, body and matter blur, dance – which is traditionally grounded in anthropocentrism – may feel threatened in its established position. However, this study argued that just as new materialism offers a richer way of contemplating the human subject, new ontologies of dance can emerge by rethinking the body differently, which expands both its methodologies and practical scopes.

Keywords: Dance(춤), Choreography(안무), New materialism(신유물론), Body(몸), Matter(물질), Anthropocentrism(인간중심주의)